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29일 월요일 음 3월 21일 (13돌)

백록담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Table with precipitation percentages for Jeju, Seosan, Gosan,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

Table with UV index and fire danger level.

Table with PM10 air quality index.

Table with PM2.5 air quality index.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15/21°C
모레 구름 많음 14/20°C

월드뉴스

러, EU 가스수송시설 공격... 우크라이나 맞불

밤새 서로 에너지시설 공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7일(현지 시간)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공격을 주고받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34기의 다양한 미사일로 자국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으며 유럽연합(EU)에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도 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미사일 발사하는 우크라이나군. 연합뉴스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도 같은 날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밤새 남부 크라스노다르주에서 66대, 크림반도에서 2대 등 총 68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베나딘 콘트라체프 크라스노다르 주지사는 "그들은 정유시설과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려고 했다"며 사상자와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오은지 교육문화체육부장

소장품은 미술관의 정체성을 보여 줌과 동시에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로, 미술관 운영의 근간이 된다. 어떤 작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는 미술관이 갖는 경쟁력 중 하나며, 위상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소장품은 미술관의 얼굴이자 미술관의 자체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작용"하며, "소장품의 특성과 질, 규모를 바탕으로 미술관의 위상과 성격이 규정"된다.

10여 년 전 작성된 이 보고서는

'이건희 컬렉션'전과 도립미술관 신소장품전

당시 소장품 수집의 문제점으로 '예산 부족'을 꼽는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여전히 문화예술 홀대론이 지적된 올해 도내 7개 공립미술관의 소장품 구입비는 '0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에 따르면 제주는 인구 백만 명당 미술관 수가 가장 많다. 하지만 1개당 평균 소장 자료는 공·사립을 합쳐 325점(전국 평균 805점)으로 전국 하위권이다.

239점, 기당미술관 708점, 이중섭미술관 386점, 소암기념관 839점, 제주추사관 279점이다. 다양한 장르의 소장품은 차별화된 기획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관람객 유인요소가 된다.

지금도 기회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소장품 구입비 '0원'을 기점으로 제주미술계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다시금 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포화상태인 소장고의 문제 해결을 비롯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중장기 소장품 수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현재 제주도립미술관에선 두 개의 '컬렉션전'이 진행

중이다. 제주에서 3개월의 여정을 시작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아홉 번째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인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전 '시대유감(時代有感)'과 도립미술관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집한 157개 작품 중 제주미술사를 토대로 제주미술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을 공개하는 신소장품전 '가랑뿔 거뭇'이다.

도립미술관에 따르면 공식 개막 첫날인 지난 23일 평일임에도 948명이 찾았고, 27일까지 5일간 3400여 명이 관람했다. 미술관은 보통 주말에 800~1000명 정도 관람하는 만큼 개막 첫 주에 대략 4300여명 정도가 다녀갈 것으로 전망(28일 오전 기준)하고 있다. 전시를 즐기며, 구입과 기증을 통해 축적되는 '미술관의 얼굴' 소장품의 가치와 수집, 공유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을 것이다.

엘린마당

제철 봄나물 안심하고 드세요



강은옥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

요즘은 '제철에 먹는 음식이 보약'이라는 생각에 음식을 챙겨먹지만 제철 채소와 과일을 구매할 때면 농약 걱정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농약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고품질의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질이다.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은 재배 과정에서 공기 중 산소나 수분, 햇빛 그리고 작물 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

자연적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재배 후 휴약기를 거쳐 출하되기 때문에 거의 소실되지만 극히 미량 잔류할 수 있다. 잔류하는 농약관리를 위해 농약이 등록되는 단계부터 인체에 축적되거나 독성이 강한 성분은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각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와 잔류 허용량도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도내 유통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을 신속하고 정밀히 검사하고 있다. 농약이 검출되거나 잔류 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유통을 차단하고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레도 짬짬하다면 농산물은 물 세척으로 쉽게 제거되는데, 식초와 물을 1대 10 비율로 섞어 15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문질러 헹구고, 특히 채소류는 잔털과 주름이 많아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세척을 해야 한다.

100원의 교훈



오소정 서귀포시 미술활력과

얼마 전 청령콘텐츠 공모전 최우수 수상작 영상을 보게됐다. '동네슈퍼의 교훈'이라는 영상은 시골마을 작은 동네슈퍼에서 겪었던 수상자 본인의 경험에 대한 것이었다. 작은 동네슈퍼라 카드 내기가 미안했던 주 인공의 담배 한 갑을 사기 위해 저급통의 동전을 털어 슈퍼에서 담배값을 계산했다. 지난번 담배 한 갑 사면서 카드 결제 했던 것이 못내 미안해 말없이 백원을 더 없어서 드렸는데 그 다음 방문했을 때 슈퍼 할머니가 주인공을 반기며 본인이 실수로 백원을 더 받았다고 미안해 하

시며 돈을 돌려주었다는 내용이었다. 영상을 보고 최우수상을 받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청령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가 됐기 때문이다. 아마 할머니는 돈을 세어보고 실수로 백원을 더 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백원쯤이야' 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기에 떳떳하게 처리하는 할머니의 그 마음이 청령인 것 같다.

이렇듯 청령의 기본은 가치를 불문하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여러 제도적 감시장치가 존재하지만 가장 무섭고 속일 수 없는 감시자는 바로 내 자신이다. 내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는지는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 자신이 되기를 다짐해본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with contact info 010-2699-7080.

Advertisement for '감굴 포트묘목 분양' (Gangul Port Seedling Distribution) with contact info 010-4450-4316.

Advertisement for '감굴묘목·포트묘목 분양' (Gangul Seedling Distribution) with contact info 010-3694-5423.

Advertisement for '2022년 정부공식 무병묘 공급업체 선정' (2022 Government Official Disease-free Seedling Supplier Selection) with contact info 064-733-7005.